

#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엄태영  
(경일대학교)

박은하\*  
(연세대학교)

주은수  
(울산대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 성취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진로결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진로결정 수준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높은 직업 만족도로 이어져 미래의 복지 수준에 대한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소외를 당하고 있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진로결정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전국의 청소년자활지원관 28개소에서 청소년 82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장벽 정도가 낮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장벽 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장벽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빈곤청소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수준, 진로장벽

\* 교신저자: 박은하, 연세대학교(winwater@hanmail.net)

■ 투고일: 2011.5.11 ■ 수정일: 2011.8.31 ■ 게재확정일: 2011.9.7

## I. 서론

청소년 시기는 미래의 진로에 대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단기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 중 어떤 쪽으로 진학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청소년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 적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기반을 두어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한 개인의 직업 만족 및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환·전용석, 2005).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 결정 수준은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OECD가입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청소년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PISA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의 진로 결정을 돕는 진로 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20위권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이미경, 2007).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 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진로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청소년자활기관협의회, 2007) 입시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빈곤 청소년의 경우 진로 결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인 직업 교육을 통한 진로 결정의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가족을 비롯해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구인회·김순규, 2002; 방하남·김기현, 2002) 빈곤 청소년의 경우 이 같은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기회의 부족뿐만 아니라 빈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 교육포부 수준을 비롯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은 가족을 비롯한 주위의 기대와 지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빈곤 청소년의 경우 가족 및 이웃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낮은 자아 존

중감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낮은 직업 기대 수준으로 이어지게 된다(Wilson, 1987; Lewis, 1966). 간혹 적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높은 수준의 직업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빈곤 청소년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유로운 진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노성환, 2003; Flouri & Buchanan, 2002).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빈곤 청소년의 교육 성취를 높이고 보다 긍정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자활지원관 등에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교육 성취 수준을 높임으로써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여유진, 2007).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빈곤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빈곤의 세대 간 대물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진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곤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주요 요인들이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진로 결정을 강화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기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물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요인에 대한 인지 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이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 데 머물고 있는 것이다(신희경·김우영, 2005; 이시연·박은미, 2009; 최수미, 2009).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로,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높은 관련성을 바탕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요인에 대한 인지 정도가 모두 진로결정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곧바로 진로 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 장벽에 대한 인지가 다시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진로 결정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이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조영아, 2007). 대상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종류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구성원에 대해 그들의 진로결정 수준이 달라진 이유와 과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을 통해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손은령,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이라는 경제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개별 청소년이 갖고 있는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가 갖는 영향에 주목하여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진로장벽 요인의 매개효과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대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

### 1. 진로결정이론

진로결정은 장시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발달적 문제이므로 진로결정과 관련한 변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실제 진로결정 관련 연구들은 진로발달단계나 직업의식발달단계를 인간의 발달과 연관 지어 진로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의 결과보다는 진로결정 영향요인과 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강무섭, 1984; 이재창, 1986).

진로결정과 관련한 이론들은 대체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주목받는 이론으로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진로상담 영역에 응용해 개인·심리적 요인들 외에 사회·환경적 영향들을 포괄하는 진로이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개인의 진로흥미가

발달되는 과정과 진로결정 및 이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Bandura(1986)는 개인적 속성들-내적·인지적·정서적 상태와 물리적 속성들, 외적·환경적 요인들, 외현 행동이라는 3가지 축이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 결합된 기제로 작용한다는 3축 호혜성 모델(triadic reciprocal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사회인지적 진로이론도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해 몇 개의 인지적-개인적 변인과 함께 개인을 제약하거나 지원해주는 개인 외적 또는 맥락적 요인들의 상호영향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따라서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개인의 진로결정을 보다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손은령·손진희,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개인적 요인과 개인을 제약하거나 지원하는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 2. 진로결정 수준

### 가. '진로결정 수준'의 개념

‘진로결정 수준’이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로 정의되어지며(Gati, Krausz & Osipow, 1996), 진로결정의 문제는 진로상담에 있어 핵심영역이므로 많은 연구의 관심주제이다. 진로결정에 대한 초기연구는 진로결정과 미결정으로 이분화하여 접근하였으나(Hartman & Fuqua, 1983; Slaney, 1988; Vondracek et al., 1990), 이후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이 연속선상의 단일차원 개념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진로결정 척도개발이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Holland와 Holland(1977)가 개발한 VCMD(Vocational Decision Making Difficulty Scale)와 Osipow, Carney, Winer, 그리고 Koschier(1980)가 개발한 CDS(Career Decision Scale)가 대표적인 척도이고, 이러한 척도활용을 통해 한 개인의 진로결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진로결정 수준을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게 되면서 진로결정 수준은 ‘향후 자신의 진로에 관해 방향 및 구

체적인 직업분야를 선택하는 정도로서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조영아, 2007).

## 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측면이 있다. 그것은 진로결정 수준의 결정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측면만 강조하게 될 경우, 자칫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의 영향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계현, 1994; 손은령, 2002). 일반적으로 개인의 진로 결정은 심리적인 요인 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제약이나 기회 구조, 성적 차별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은령, 2002). 이 같은 요인들은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일종의 장벽과도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토할 때에는 개인의 내적인 요인은 물론 개인의 진로결정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진로 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아존중감(self-respect)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Rosenberg, 1979). 진로결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진로태도의 성숙 정도가 높고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hn & Alvi, 1983; Harren, 1979; Crook et al., 1984). 하지만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국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최수미, 2009).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두 변수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박효희·성태제, 2008; 최수미, 2009; 이시연·박은미, 2009).

한편,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은 기존의 진로상담 연구들이 지나치게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개인적 변인에만 관심을 두고, 개인의 결정을 제약하거나 지원해주는 환경적 요인들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이 속한 환경적 요인들

을 연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Lent et al., 1994; 2000).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진로결정의 중요한 영향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박미경 외, 2008; 송보라 외, 2008; 엄태영 외 2009).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지지의 내용으로 진로영역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면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Betz, 1989).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대체로 개인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복남, 2004).

구체적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 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심도있는 진로탐색활동을 수행하면서 준비된 진로를 선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lustein, 1997; McWhirter et al., 1998). 국내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연구대상과 동일한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복남, 2004; 엄태영 외, 2009)에서도 진로결정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매우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진로장벽(Career Barrier)

#### 가. 진로장벽의 개념

일반적으로 진로장벽은 진로선택을 방해 또는 가로막고 있는 내외적 요인을 의미한다(손은령, 200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적 진로장벽은 개인의 자신감이 부족한 것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의미하고, 외적 진로장벽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숙정·유지현, 2009).

진로장벽과 관련한 초기연구는 주로 여성이 진로선택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된 것이었으나(Fitzgerald & Crites, 1980) 최근에는 여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남성을 포괄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Lucas & Epperson, 1990; Swanson & Tokar, 1991a). 이러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개인 내부와 외부의 장벽 모두를 포함한다(Swanson & Woitke, 1997). 이러한 장벽을 내부장벽과 외부장벽 등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진로장벽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사회대인적 장벽과 태도장벽, 상호작

용적 장벽 등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Swanson & Tokar, 1991b). 이후 대상별로 진로장벽척도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Swanson & Daniels<sup>1)</sup>, 1995; Tien, 1998<sup>2)</sup>).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총 45개 문항의 진로탐색장애검사가 개발되었고(김은영, 2001) 여기서 진로장벽은 9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과 흥미부족, 미래불안의 내용이다. 또한 김은영(2001)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주금옥(2002)은 중도탈락 청소년들로만 국한하여 연구하였으며 기존의 9개 하위요인에 더해 기술부족과 능력부족 등 총 11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 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

개인이 진로장벽을 지각하면 진로목표설정이나 진로선택 등과 같은 후속적인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진로장벽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진로결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가정될 수 있다(손은령, 2002). 하지만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진로장벽 영향력과 관련한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최근의 진로장벽검사개발과정과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그리 풍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조영아,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멕시코계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uzzo & Jenkins, 1996)에서는 진로장벽을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Luzzo(199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기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손은령, 2001)에서 진로장벽 지각정도 와 진로결정 수준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의 연구들(손은령, 2002; 정홍원,

- 
- 1) Swanson과 Daniel(1995)은 진로장벽검사 개정판(CBI-R)을 통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13가지를 들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별, 자신감부족, 역할갈등, 자녀와 진로간의 갈등, 인종차별, 부적절한 준비, 비전통적 진로선택에 대한 갈등, 의사결정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불만, 노동시장의 제약, 중요한 타인들의 반대, 신체장애 및 건강상의 문제, 인맥만들기/사회화의 어려움 등이다.
  - 2) Tien(1998)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을 12가지로 구성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인식, 성차별, 가족책임감, 부적절한 훈련, 지지의 부족, 여성에 대한 태도, 다중역할 갈등, 비전통적 영역에서의 좌절, 진로불만족, 부적절한 경험, 나이와 신체적 무능력, 결혼과 자녀의 방해 등이다.

2002) 또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던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 다. 진로장벽에 대한 영향요인

진로장벽 영향요인 연구와 관련해서는 우선 많은 연구들이 자이존중감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낮은 자이존중감은 진로 미결정의 주요 예측변수로 분석되고 있다(Cooper et al., 1984; Santos, 2001; Bacanli, 2006; 송소원, 2001; 이시연·박은미, 2009). 그 외에 진로장벽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Wall, Covell & Macintyre, 1999)에서 사회적 지지가 외적 장애 지각을 매개로 하여 진로목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고, 흑인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질적 연구(Flores & O'Brien, 2002)에서도 부모로부터의 지지는 자녀들이 진로장벽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주요 원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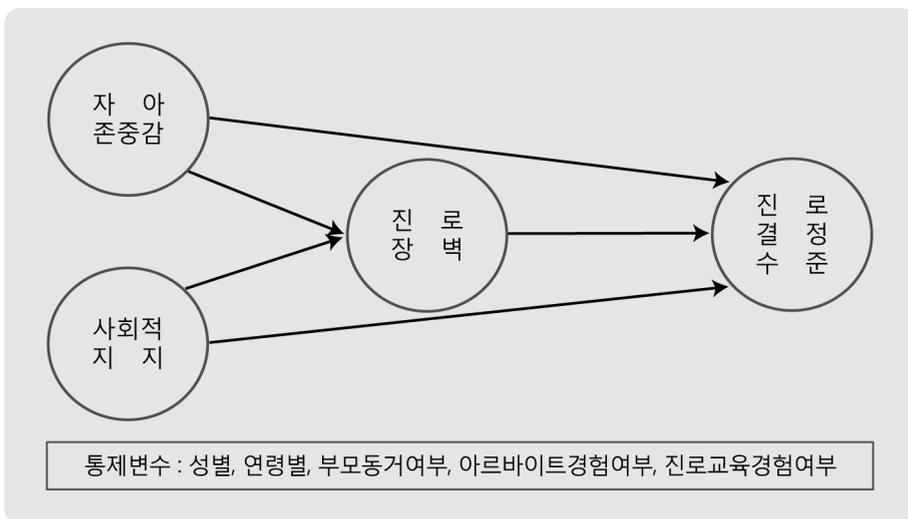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류진혜·김태성, 1998)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보라 외, 2008)에서도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정보적 지지가 여대생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위한 저항력을 키움으로써 진로장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자이존중감이 낮을수록 진로장벽의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낮은 사회적 지지도 진로장벽의 수준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벽 정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성별과 연령, 부모동거여부,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진로관련 교육경험여부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Brown, 2004; Mech, 1994; 임태영 외, 2009; 한복남, 2004).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8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전국 2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자활지원관<sup>3)</sup>이 2007년 6월 전국 빈곤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조사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 자활지원관 실무자 및 성인면접조사원이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직접 면접하여 수집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부호화(Coding)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쳤고,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검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test<sup>4)</sup>를 수행하였다.

## 4. 변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및 이의 측정을 위한 방법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연령, 양부모와 함께 사는지 여부와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진로 관련 교육 경험 등이 고려되었다. 이중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고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으로서 빈곤청소년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중부권역이 9개소, 부산대구를 중심으로 영남권역이 10개소, 광주대전을 중심으로 호남권역에 9개소 등 총 28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

4) sobel-test는 매개효과에 대한 직접 검증방법으로써 궁극적으로 매개효과로 인해 감소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설명해준다.

표 1. 변수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신뢰도
종속 변수	진로 결정 수준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1986)가 개발한 진로결정수준검사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한국적 실정에 맞게 변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특히 이 척도는 응답자가 경험하고 있는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1개 등 모두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는 이중 자유반응형 문항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867$
독립 변수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Self-Esteem Scale) 10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770$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등(1988)이 개발한 다차원지지척도를 김지혜(2002)가 한국적 실정에 맞게 변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 4문항, 친구 4문항, 의미있는 타인 4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905$
매개 변수	진로장벽	진로장벽을 측정하기위해서는 Swanson 외(1996)가 개발한 진로장벽척도(Career Barrier Inventory: CBI)를 주금옥(2002)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절히 수정, 개발한 것을 활용하였다. 하위척도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기술부족 및 능력부족 등 총 11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4점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진로장벽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Cronbach's $\alpha = .920$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419명(50.9%)이었고, 여자 청소년이 404명(49.1%)이었다. 연령의 경우 17세가 226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16세가 221명(26.7%), 18세가 182명(22.0%)이었다.

양 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청소년은 442명(54.4%)이었고,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와 양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370명(45.6%)이었다.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1명(28.3%)이었고,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40명(66.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진로지도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271명(33.4%)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540명, 66.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N=823)	남성	419(50.9)	여성	404(49.1)
연령(N=827)	13세	2(0.2)	14세	27(3.3)
	15세	169(20.4)	16세	221(26.7)
	17세	226(27.3)	18세	182(22.0)
양부모동거여부(N=812)	동거함	442(54.4)	동거하지않음	370(45.6)
아르바이트경험(N=817)	있다	231(28.3)	없다	586(71.7)
진로지도교육경험(N=811)	있다	271(33.4)	없다	540(66.6)

## 2.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진로결정 수준과 자이존중감,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그리고 성별과 연령, 양부모동거여부, 아르바이트경험여부, 진로지도교육경험여부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주요 변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진로결정 수준과 독립변수인 자이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매개변수인 진로장벽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자이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과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이 상관이 있었으며, 진로장벽이 높아지는 것과 진로결정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상관이 있었다. 그 외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상관관계 결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상관관계분석결과

구분	진로결정수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성별	연령	부모동거	아르바이트	진로지도
진로결정수준	1								
자아 존중감	.322**	1							
사회적 지지	.197**	.364**	1						
진로장벽	-.592**	-.390**	-.277**	1					
성별	.003	.049	-.071*	-.068	1				
연령	.040	.036	-.075*	-.023	-.077*	1			
부모동거	-.069*	.014	.011	.010	.051	-.059	1		
아르바이트	-.030	-.026	.037	.016	-.025	-.242**	-.002	1	
진로지도	.001	.011	-.005	.023	-.003	.061	.021	-.004	1

\*\* : p<.01, \* : p<.05

### 3.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빈곤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진로결정 수준 사이에서 진로장벽 정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 및 홍세희(2008)의 분석단계를 따랐고,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 중 Arojan 방식을 활용하였다(Baron & Kenny, 1986)<sup>5)</sup>.

#### 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진로장벽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5) 매개효과 검증단계는 첫번째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독립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각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Baron과 Kenny(1986)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홍세희(2008)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도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홍세희의 분석단계를 적용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관계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상황에서의 종속변수와의 관계 등 2단계로 분석하였다.

표 4. 진로장벽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계수(B)	표준오차(S.E)	베타( $\beta$ )	
통제변수	성별	-.057	.026	-.071	-2.185****
	연령	-.010	.012	-.029	-.870****
	부모동거여부	.020	.026	.025	.770****
	아르바이트경험유무	-.004	.030	-.004	-.122****
	진로지도경험유무	.000	.000	.039	1.223***
독립변수	자아존중감	-.294	.031	-.326	-9.390***
	사회적지지	-.098	.019	-.176	-5.062***
Constant		23.737	23.380		1.015***

$R^2 = 0.186 / F = 25.629^{***}$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결과 우선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8.6%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F=25.629$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p < .001$ )로 나타나 회귀식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beta = -.326$ )과 사회적 지지( $\beta = -.176$ )가 진로장벽에 대해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됨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었다.

#### 나.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진로장벽 정도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계수(B)	표준오차(S.E)	베타( $\beta$ )	
통제변수	성별	-.030	.029	-.030	-1.030****
	연령	.002	.013	.182	.182****
	부모동거여부	.065	.029	2.255	2.255****
	아르바이트경험유무	-.013	.033	-.392	-.392****
	진로지도경험유무	.000	.000	-.067	-.067****
독립변수	자아존중감	.127	.037	.112	3.453**
	사회적지지	-.004	.022	-.005	-.163***
매개변수	진로장벽	-.694	.040	-.550	-17.471***
Constant		-.722	26.085		-.028****

$R^2 = 0.359 / F = 56.661^{***}$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 결과, 우선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5.9%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F=56.661$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p < .001$ )로 나타나 회귀식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진로장벽 정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매개변수인 진로장벽을 동시에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beta = .112$ )은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 수준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진로장벽( $\beta = -.550$ )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 간에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검증 결과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 수준 간에는 진로장벽이 부분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 간에는 진로장벽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인 진로장벽은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 수준 간에는 부분매개의 역할을,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 간에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 중 Baron & Kenny(1986)에 의해 활용된 Aroian 검증방법을 적용하였고 Aroian 검증방법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이 공식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p-value
자아존중감 → 진로장벽 → 진로결정 수준	8.26	0.000
사회적지지 → 진로장벽 → 진로결정 수준	4.85	0.000

\*\*\*: p < .001

Aroian 검증결과 먼저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 수준 간에 진로장벽의 경우 Z값이 8.26으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 간에 진로장벽의 경우 Z값이 4.85로서 p<.001 수준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결국 빈곤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장벽 정도는 이들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빈곤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수준에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진로장벽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진로장벽 정도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Baron & Kenney(1986)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증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진로장벽정도는 낮아졌고, 진로장벽 정도가 낮아질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 수준에 대해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수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매개변수인 진로장벽 정도는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 수준 간에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지만,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수준 간에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빈곤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빈곤청소년의 상황에 적합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지속적인 개별상담이 제공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아존중감 향상 관련 실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을 낮춘다는 실증결과를 고려하여 빈곤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장벽 측정척도의 구성요인이 대인관계상의 문제와 직업관련 정보의 부족, 다양한 개인의 열등감, 진로에 대한 흥미부족, 기술이나 능력부족 등임을 감안할 때 빈곤청소년 대상 진로관련 프로그램 시행 시 세부 목표로서 이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을 고려한 실천적 접근이 요청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지는 못하지만 진로결정수준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빈곤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가족과 또래, 관련인에 대한 지지망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가족과 관련해서는 빈곤청소년 관련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가족들이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대상 집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래와 관련해서는 또래상담이나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 진로와 관련한 적절한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또래상담가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관련인의 지지에서는 빈곤청소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사나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이 빈곤청소년들의 진로장벽 수준에 자신들의 지지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 시 빈곤청소년 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진로관련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진로지도의 궁극적 목적인 진로결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빈곤 청소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진로장벽 수준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진로장벽 수준 관련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빈곤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빈곤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빈곤청소년이 진로와 관련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수준의 저해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진로장벽수준이 낮아져야 하고, 이의 선행조건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위한 접근과 이들의 가족과 또래, 그리고 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관련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인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은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장벽,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조사한 횡단조사이므로 향후에는 이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간에 측정시간에 차이를 두는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진로결정과 관련한 인지적 수준을 측정하는 것 이외에 실제 직업선택이나 진로결정 등의 구체적 결과물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세 번째로 빈곤청소년들의 진로장벽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나, 진로장벽의 하위영역별로 영향 수준을 밝히는 연구는 보다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

- 강무섭(1984).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구인회, 김순규(2002).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계현(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 경향. 상담과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 6(1), pp.142-170.
- 김성환, 전용석(2005). 청소년 진로선택 결정요인: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제1회 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지혜(2002). 미혼모를 위한 생태체계적 지지집단 개입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노성환(200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류진혜, 김태성(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6(1), pp.211-232.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pp.1-26.
- 박효희, 성태제(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pp.117-142.
- 방하남, 김기현(2002).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세대간 변화와 불평등의 추이.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_\_\_\_\_(2002).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5(2), pp.1-14.
-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

- 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7(2), pp.399-417.
- 송보라, 황정은, 이기학(2008). 여대생의 지각된 진로장벽, 자존감,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송소원(2001).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학생생활연구, 14, pp.1-23.
- 신희경, 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제1회 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엄태영, 김교연, 한복남(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7(2), pp.69-85.
- 여유진(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미경(2007). PISA 2006 결과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시연, 박은미(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pp.141-159.
- 이숙정, 유지현(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pp.35-64.
- 이재창(1986).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2, pp.67-90.
- 정홍원(2002).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조영아(2007). 비서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16(1), pp.107-127.
- 주금옥(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청소년자활기관협의회(2007). 빈곤가정 청소년의 빈곤실태 및 자립 욕구.
- 최수미(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0(4), pp.2257-2271.
- 한복남(2004). 수급권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홍세희(2008).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IV. 구조방정식모형: 초급, 중급. 서울: S&M 리

서치그룹.

- Bacanli, F.(200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2*(4), pp.320-332.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on, R. M.,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1173-1182
- Betz, N. E.(1989). Implication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ist, 17*, pp.136-144.
- Blustein, D. L.(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pp.260-274.
- Brown, S. C.(2004). Where this path may lead: Understanding career decision-making for postcollege lif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5*(4), pp.375-390.
- Cooper, S. E., Fuqua, D. R., Hartman, B. W.(1984). The relationship of trait indecisiveness to vocational uncertainty, career indecision,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pp.353-357.
- Crook, R. H., Healy, C. C., O'Shea, D. W.(1984). The linkage of work achievement to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pp.70-79.
- Fitzgerald, L. F., Crites, J. O.(1980). Toward a career psychology of women: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1), pp.44-62.
- Flores, L. Y., O'Brien, K. M.(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pp.14-27.
- Flouri, E., Buchanan, A.(2002). The role of work-related skills and career role

- models i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 pp.36-43.
- Gati, L., Krausz, M.,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pp.11-25.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pp.119-133.
- Hartman, B. W., Fuqua, D. R.(1983). Career indecision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 reply to Grites, *The School Counselor*, 30, pp.340-349.
- Holland, J. L., Holland, J. 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pp.404-414.
- Kahn, S. D., Alvi, S. A.(1983). Educational, soci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pp.357-364.
- Lent, R. W., Brown, S. D.,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pp.79-122.
- \_\_\_\_\_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pp.36-49.
- Lewis, O.(1966). Culture of poverty. *Scientific American*, 215(4), pp.19-25.
- Lucas, M. S., Epperson, D. L.(1990). Types of vocational under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pp.382-388.
- Luzzo, D. A.(1997). *Correlates of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Luzzo, D. A., Jenkins, S. A.(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 pp.1-8.
- McWhirter, E. H., Hackett, G., Bandalos, D. L.(1998). A casu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

- school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2), pp.166-181.
- Mech, E. V.(1994). *Preparing Foster Adolescents for Self-Support: A new challenge for child welfare service.*
- Osipow, S.(1986). Career Decision Scale : How good does it have to b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 pp.15-18.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Koschier, M.(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Rosenberg, 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 conceiving the self.* NewYork: Basic Books, Inc.
- Santos, P. J.(2001). Predictors of generalized indecision among Portugu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4), pp.381-396.
- Slaney, R. B.(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B. Walsh & S. 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Hillsdale, NJ:Erlbaum, pp.33-77.
- Swanson, J. L., Daniels, K. K., Tokar, D. M.(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pp.219-244.
- Swanson, J. L., Daniels, K. K.(1995).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 Swanson, J. L., Tokar, D. M.(1991a).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pp.92-106.
- \_\_\_\_\_ (1991b).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 Inventory. *Jo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pp.344-361.
- Swanson, J. L., Woitke, M. B.(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pp.443-462.
- Tien, H. S.(1998). *Development initial validation of Chinese Career Barriers Inventor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L.A.
- Vondracek, F. W., Hostetler, M., Schulenberg, J. E.(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1), pp.98-106.
- Wall, J., Covell, K., Macintyre, P.(1999). Implications of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education and career aspiration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 Science*, 31(2), pp.63-71.
- Wilson W.(1987). *The truly disadvantag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imet, S. G., Farly, G. K.(199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pp.30-41.

엄태영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일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자활사업과 지역사회복지이며, 현재 빈곤 및 자활사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bokjisano1@kiu.ac.kr)

박은하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복지정책과 젠더친화적 복지국가이며, 현재 여성고용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E-mail: winwater@hanmail.net)

주은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정책 및 아동복지이며, 현재 아동보육정책 및 중고령자의 재취업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mail: eunsu@ulsan.ac.kr)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respect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among Low-income Adolescents in Korea**

##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barrier**

**Um, Tae-Young**  
(Kyungil University)

**Park, Eun-Ha**  
(Yonsei University)

**Ju, Eunsu**  
(University of Ulsan)

---

Due to the exam-driven education system in Korea, adolescents show lower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hile their educational achievemen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ir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Higher career decision level is a key determinant of future well-being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well-paying jobs and higher job-satisfaction. However, research in this area is quite limited and fragmented.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barriers which link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o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among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Data was gathered from 827 teenagers enrolled in programs in 28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in Korea. Results show tha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 level of career barrier, and a level of career barrier is inversely correlated with a career decision level. Also, career-barrier is found to be a perfect mediator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To enhanc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low income adolescents, authors suggest solu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hich can minimize career barriers.

---

**Keywords:** Adolescent with Poverty, Self-esteem,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Barrier